

# 학교 부적응 실태 조사 및 자아 존중감 향상 방안 제언

이석기\*

## A Survey on the Maladjustment of Students in school and a Proposal to Improve Their Self-Esteem

Lee, Seok-ki

### 요약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생활 및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PISA 국제 학력 평가에서 매년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이면서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과목에 대한 태도 등에서 매우 저조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은 우리 교육의 역설이자 모순이며 심각한 왜곡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초·중등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성 교육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면과 프로그램 적용 면에서 한 가지씩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목표(지표)에 전인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토록 제안한다.

\*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관

2.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 기억을 지우는 마음수련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주제어 : 학교 부적응, 자아 존중감, 전인교육, 마음수련

## I. 서론

요즘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물질적인 것이 우선시되고 물질적인 것이 항상 이 사회를 지배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의 틈 속에서 우리들의 2세대들은 자라고 있다. 학교 내에서 성적이 좋은 집단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공부를 못하고 또한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생활 및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학교에서도 소외 받고 가정에서도 공부를 못하니 인정받지 못하고 과연 이들 학교 부적응 학생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도 방황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중도탈락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또는 듣기에도 정말 민망한 심한 욕설이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등장

하고 있다. 가출, 폭행, 자살 등 일탈 행동도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 및 가정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교 및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연 나 자신이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부적응 학생을 마음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 자녀가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안병영, 김인희(2009)는 우리 교육 체제 속의 구성원, 특히 학습자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 경험의 유의미성과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OECD/PISA 국제학력비교에서 매년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이면서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과목에 대한 태도 등에서 매우 저조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은 우리 교육의 역설이자 모순이며 심각한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기존 논문 및 문헌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적응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통해 이들 부적응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학교 부적응 이론에 대하여

### 1. 학교 부적응의 개념

학교 부적응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개념이다(류방란 외, 2007). 학생들의 학교 학습, 생활과 관련한 여러 차원의 문제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 학생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습 부진, 학교 폭력 등 여러 문제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어떤 교사에게는 학교 부적응으로 보이는 행위가 다른 교사에게는 학교 부적응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부적응이란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기보다는 완전한 적응이나 극단적인 부적응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교 부적응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하다가 그렇지 않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 체제는 학생에게 인식과 행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그러한 기능에 순응하지 못하여 갈등을 빚는 현상을 학교 부적응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이란 학교 체제 안에서 학교의 요구, 기대와 학생 주체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나 어떤 학생들은 그 요구나 기대에 따르지 않거나 못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요구와 기대를 부과하는 것 모두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의 요구, 기대와 갈등을 겪거나 부조화를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주변화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와의 갈등, 부조화의 정도나 특성, 주변화의 정도 등에 의해 1) 일상적인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2) 무단결석 등 학교 이탈 경험을 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 3) 학업 중

단 학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 학교 부적응의 관점

안병영, 김인희(2009)는 교육 부적응을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의 구현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 즉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통틀어 교육 소외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적 요구에 부합되는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1) 어떤 종류이건 교육의 기회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을 받고는 있으나 그 교육의 유의미성을 결정짓는 제 조건(교육의 내용, 방법, 환경 등)이 교육적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교육 조건이 자신에게 적합하기는 하나 학습의 양이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의 경우는 교육 기회 제한의 문제 2)의 경우는 교육 부적응 문제 3)의 경우는 교육 불충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부적응의 경우는 교육의 조건 중 어떤 요소가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로 학습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의 유의미성은 낮아지게 되며 성장을 위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교육의 방법이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교

육 방법이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내용이 전달된다면 교육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교육 환경이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교육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주로 교육 공간과 교육 설비의 문제이다. 심리-문화적 환경은 교육자와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 의식, 사고방식, 태도, 정서, 행동 양식, 신념 체계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자와 학습자의 현실 인식, 상호작용 양식, 성취동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중시하고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 풍토 및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학습자의 성취도와 성장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 소외의 유형 속에서 교육 부적응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교육 소외의 유형

교육 소외의 유형		현상	
교육 기회의 접근 제한		교육 기회에 접근 못하거나 접근의 정도가 충분치 못함	
교육 부적응	교육 내용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가 맞지 않음	
	교육 방법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 방법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 환경 부적응	물리적 환경	교육 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심리, 문화적 환경	교육 장소의 심리적, 문화적 환경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 기회 공급 불충분		교육의 질적 조건은 적합하나 교육 자원 부족 등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 양적 충족 못함	

안병영, 김인희(2009)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은 주로 학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대안도 논의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응이란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적응자와 피적응자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관계는 상호적이다. 상호적인 관점을 우리가 택한다면, 우리의 질문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즉,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질문이 성립한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잘 적응하는가의 질문도 성립하는 것이다. 학교는 무결함의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토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실천 가능한 대안의 범위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결과적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나타난다.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의 소지는 학교에도 있을 수 있다.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쌍방간의 적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측의 적응 유연성이 낮을수록 적응도는 떨어지게 된다. 즉, 학생의 적응 유연성과 학교의 적응 유연성이 학교 적응 또는 학교 부적응의 정도와 양태를 결정짓게 된다.

학생의 적응 유연성에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하는 능력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조절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어 개인적 상황 적응력은 높아지게 된다. 아래 표를 통해 학교의 유연성과 학생의 적응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학교 적응-부적응의 유형

		← 학교의 유연성 →	
		상	하
상 ↑ 학생의 적응력 ↓ 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 \* 유형 1: 학교와 학생 모두 유연성이 높음, 부적응 현상 없음
- \* 유형 2: 학교는 유연성이 낮으나 학생이 이에 적응하여 나감  
적응은 하지만 만족도는 낮음
- \* 유형 3: 학생의 적응력은 떨어지나 학교가 유연하게 이들을 수용함  
유형 1의 경우보다 더욱 높은 학교의 유연성이 요구됨
- \* 유형 4: 학교와 학생 모두 유연성이 낮음, 학교 부적응 심각함

### 3. 학교 부적응 형태

교육 부적응이란 문자 그대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의 의지로 학교에 적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학교 부적응은 크게 1) 학교에 등교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유지 부적응) 2) 학교를 떠나는 경우(분리 부적응)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지 부적응의 경우는 ① 학교 내의 교육목표, 철학, 내용, 방법, 규칙 등을 위반하면서 등교하는 경우(예: 지각, 무단 조퇴, 결석, 흡연, 음주, 집단 따돌림 등) ② 개인의 지적 능력 저하 및 신체 기능의 약화로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예: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학교 졸업에 대한 의지 있음, 학습 부진 등)가 있다.

분리 부적응의 경우는 ① 학교 내의 교육목표, 철학, 내용, 방법, 규칙

등이 자신의 교육적 욕구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는 경우(예: 감정 고시, 대안 교육 지향) ② 신체적 기능 약화, 지적 능력의 저하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예: 방문 학습, 병원 학습 등) ③ 부적절한 교우 관계,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예: 전학, 대안 교육) ④ 위 항의 여러 가지 이유 및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퇴학, 자퇴 등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에서 배회하거나 혼자 칩거하는 경우(즉 모든 교육적 활동의 수용을 거부 혹은 포기) 등이 있다.

#### 4. 선행 연구 논문 검토

학교 부적응에 대하여 기존 선행 연구 논문 및 자료를 통해 학교 부적응의 요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가. 학교 부적응의 요인

###### 1) 개인 및 가정적 요인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치관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사랑과 관심, 애정에 대한 욕구불만이 증가하고 그 욕구에 반대되는 행위(일탈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보상받으려 한다. 부모가 모두 살아있으나 부부의 심리적 갈등이 심해 불화가 잦은 경우도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며 심지어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는 대인관계를 피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및 지도 방법이 청소년

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지도 방법이다.

류방란 외(2007)는 가정의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가정의 기능 변인은 부적응의 전체 유형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의 학업 진로 지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 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 부적응 수준이 낮아진다. 가정의 영향은 학교를 중도 탈락하기 전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무단결석, 무단조퇴, 수업 빼먹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성적 수준도 높고 부모의 학업지원 수준도 더 높는데 가정의 기능에 있어서는 중간층에 비해 오히려 더 부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공부를 잘 할 것을 강조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적도 좋지만 자녀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은 오히려 중산층에 비해 더 적기 때문에 고소득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고 부적응 친구도 사귀게 될 확률이 중간층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 2) 학교 수준 요인

학교 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개인수준 변인보다 학교수준 변인이 대체적으로 더 적다. 학교 부적응에 가장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수준 변인은 학교의 규범 강조 풍토이다. 즉 학교에서 규범을 강조할수록 부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규범을 강조하는 풍토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부적응을 높인다는 것은 실제 학교에서는 규범 강조 여부가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부적절한 교육제도 및 교육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 목표는 대부분 '명문대 진학'이다. 좋은 사람, 참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게 완수해야 할 과제가 명문대 입학이다. 사회가 '명문대학' 출신자들을 선호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낙오하지 않으려면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에만 몰입하면서 인성, 덕성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제도가 학교교육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 주게 되고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 실패감을 가져다준다.

교사와의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교사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를 모욕하거나 가정교육을 탓할 때, 학생은 커다란 충격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담임교사와의 갈등적인 관계로 학교를 전학하는 경우도 있다.

### 3) 교우 관계 등 외적 요인

교우와의 관계에서 청소년기 교우 관계는 학교 적응-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친구, 또래와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자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긍정적인 교우 관계는 강한 응집력을 주어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교우 관계는 긴장감을 유발하여 항상 불안하고 위축된다. 특히

집단으로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종 영상매체도 학생들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하는데 이것은 특히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서서히 점차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은 재미로, 호기심으로, 또래 문화와의 접촉 방법으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며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약하게 되어 점차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된다. 또한 TV, 영화, 스포츠 신문, 만화 등의 내용이 점차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 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징

김금순(1997)은 부적응 학생들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과 방어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 둘째, 교사들과의 갈등관계로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거나 바르지 못한 수업 태도 등으로 교사로 부터 자주 지적을 받고 관계가 나빠져 있다.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셋째, 방과 후 처지가 비슷한 또래와 어울려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볼 수 있음).

여혜숙(2002)은 심리적인 특성으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과 자기 효능감이 낮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행동적인 특성으로는 대인관계의 문제로 폭력 행동, 비사교적인 행동, 교사나 성인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 등을 지적하였다.

변귀연(2004)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낮은 자기 존중감이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감,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어 다양한 문제 행동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학업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화 부족이다. 이들은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산만한 수업 태도를 보이고 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교가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없다고 여긴다. 셋째,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간의 관계에 응집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비행 행동의 문제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은 교칙 위반, 무단결석, 가출, 폭력, 도벽 등의 행동을 보여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기도 한다. 부적응이 심화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성인을 모방하는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

### III. 학교 부적응 실태

#### 1. 학교 부적응 현황

가. 2005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55,563건이며 그 가운데 학교 부적응에 관한 상담 건수는 21,688건인데,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약 3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 탈락 건수도 2005년의 경우 68,116건으로 전체 학생의 약 1.67%를 나타내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나.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에서 우리나라 중학생 719명과 고등학생 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부적응 경험에 대한 의견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45.9%가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가기 싫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3%에 지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로는 공부가 싫어서(23.5%), 학교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22.6%) 등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도 학교 폭력, 선생님이 싫어서, 친구의 따돌림, 과도한 숙제 등이 나타났다.

#### 다. 학업 중단 청소년 최근 현황

〈표 3〉 학업 중단 청소년 최근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	중	고			합계
			인문계	전문계	계	
'06.2	18,403(0.46)	15,669(0.78)	10,166(0.81)	12,910(2.57)	23,076(1.31)	57,148(0.73)
'07.2	23,898(0.61)	18,968(0.91)	12,616(0.98)	15,314(3.10)	27,930(1.57)	70,796(0.90)
'08.2	20,450(0.55)	20,101(0.98)	15,477(1.15)	17,466(3.58)	32,943(1.73)	73,494(0.96)
'09.2	18,132(0.52)	19,681(0.98)	16,174(1.14)	18,099(3.76)	34,273(1.74)	72,086(0.96)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 )는 해당 전체 학생 대비 비율

#### 〈자료 설명〉

교과부의 국회자료로 '초·중·고교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06년 57,148명에서 2008년 73,494명으로 3년 만에 28.6%가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6년 18,403명에서 2008년 20,450명으로 11%, 중학교는 15,669명에서 20,101명으로 28.3%가 늘었다. 고등학교는 23,076명에서 32,943명으로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

학교의 경우 조기 유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에 의한 학업 중단이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2006년 6,775명(29.4%)에서 2007년 8,057명(28.8%), 2008년 1만200명(31%)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모 의원은 “과도한 입시 경쟁에 따른 황폐한 교육 환경과 스트레스, 경제 불황으로 학업 중단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대안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09.9.13).

## 라. 학업 중단 학생 연도별 통계

### 1) 연도별 학업 중단율

〈표 4〉 연도별 학업 중단율 (단위: %)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2.7	2.4	3.7	2.2	3.3	1.9	4.1	2.6
1975	2.3	1.9	3.1	1.8	3.0	1.7	3.1	1.9
1980	1.4	1.2	3.0	1.8	2.6	1.5	3.4	2.1
1985	1.2	1.1	3.3	2.4	2.7	1.8	4.3	3.0
1990	1.0	0.8	2.4	1.5	1.9	1.2	3.2	1.9
1995	1.0	1.0	2.4	1.9	1.4	1.0	3.9	3.0
2000	0.7	0.7	2.3	1.9	1.1	0.9	4.4	3.5
2001	0.7	0.7	2.2	2.0	1.2	1.0	4.2	3.8
2002	0.5	0.5	1.9	1.7	1.0	0.9	3.7	3.3
2003	0.7	0.7	1.6	1.4	0.9	0.8	3.2	2.8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04	0.7	0.7	1.3	1.4	0.8	0.8	2.5	2.6
2005	0.8	0.7	1.3	1.2	0.8	0.7	2.6	2.4
2006	0.9	0.9	1.6	1.4	1.0	0.8	3.1	2.8
2007	1.0	0.9	1.7	1.5	1.1	0.9	3.6	3.2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재적학생 수) × 100

계는 전체 비율, 여는 여학생 비율임

2) 학업 중단자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중퇴 및 휴학자임.

3)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 시행으로 학업 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봄.

4) 자료의 제한으로 1990년까지는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포함되었으며, 1995년에는 유학/이민자가 포함됨. 2000년부터는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제외됨.

5) 고등학교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자료 설명〉

학업 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수에 대한 학업 중단자 수(재적자, 중퇴자 및 휴학자 수)의 비율이다.

중학교의 경우 1970년도의 학업 중단율은 2.7%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부터 1% 이하로 떨어진 후, 2005년에는 0.8%의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1970년 3.3%에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1.2%에 머물렀으며 200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중단율이 1970년 4.1%, 1980년 3.4%, 1985년 4.3%, 1990년 3.2%로 증감을 되풀이하였으나,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4.4%까지 증가한 이후 2005년 2.6%, 2006년

3.1%, 2007년 3.6%를 보인다.

2006년, 2007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학년도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2006학년도 대비 0.5% 증가한 3.6%이다.

## 2)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 중단자 현황(2004년~2007년)

학업 중단 사유로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가 있으며, 2007학년도에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모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 수가 가장 많았다.

〈표 5〉 일반계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 중단자 현황

연도	학업 중단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계
2004	974	3,456	145	3,278	2,632	10,485
2005	934	2,779	162	3,093	2,459	9,427
2006	1,083	2,952	138	2,993	3,000	10,166
2007	1,350	3,920	149	3,288	3,909	12,616

〈표 6〉 전문계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 중단자 현황

연도	학업 중단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계
2004	433	7,746	781	5,999	2,186	17,145
2005	426	6,924	687	4,484	2,089	14,610
2006	439	6,087	514	3,782	2,088	12,910
2007	618	7,049	713	4,769	2,165	15,31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2. 북한이탈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

### 가. 북한이탈 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최근 들어 북한이탈 주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총 2,500여 명이 남한으로 이주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2,183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아동·청소년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북한이탈 주민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학 단계까지의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0세부터 21세까지 주민들은 2007년을 기준으로 모두 451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 학생들은 남한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들은 남북한 학제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남한은 초·중·고교가 각각 6년, 3년, 3년인데 비해 북한은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서 취학연령과 학교 급별 재학기간이 남한과 다르다.

여기에 북한이탈 학생들은 남북한 교과목과 교육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적 풍토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제3국에서 2~3년에 걸쳐 장기 체류하는 기간을 거치고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 부적응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3.5%, 중학교 12.9%, 고등학교 20.1%의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연령보다 1~2년 낮추어 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위축감

이나 좌절감을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교육 용어의 차이와 교육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교과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력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생활 및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공포심과 장래 남한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남북한 간 문화, 이념,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남한 학생들의 몰이해와 차별적 대응으로 인한 부적응 일탈 행동도 보고되었다. 우리 학교에 북한 교육 체제와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한 교육 내용과 접목시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 체제하에서 수학한 북한이탈 학생들을 남한 교육제도로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평가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김미숙(2004)은 북한이탈 학생들은 교사에게 순종하는 편이었으며 수업 태도도 비교적 좋으며 교사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으며 발표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백 기간이 길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다른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식, 풍토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북한 출신임을 밝히기를 꺼려했으나, 남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남한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보다 의리가 없고 이기적이며 타산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남한 친구들에게 북한 출신임을 밝히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성 평등 의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체로 가부장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공적인 업무에서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가와 더불어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청소년들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한으로 이주한 전

체 탈북주민 가운데 취학단계에 있는 청소년층을 보면 10세 미만은 3.7%에 해당하며, 10~19세 12.2%, 20~29세 27.9%로서 3분의 1정도의 탈북주민이 취학단계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21세 이하의 대학을 포함한 취학연령 계층 비율은 전체적으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학 중인 북한이탈 학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취학률이 낮아지고 있다.

〈표 7〉 북한이탈 주민 입국 현황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남자	564	32	235	564	513	468	625	422	509	570	609	5,111
여자	43	2	71	475	625	813	1,269	961	1,509	1,974	2,200	1,946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증가율					1.95	1.13	1.48	0.73	1.46	1.26	1.10	

자료: 통일부 제공

〈표 8〉 북한이탈 학생 학교급별 취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 3	2005. 8	2004. 3	2005. 8	2004. 3	2005. 8
	6~12세	6~14세	13~15세	15~17세	16~20세	18~21세
취학대상	217명	351명	114명	224명	294명	412명
재학생	364명	247명	66명	131명	32명	43명
취학률	167.7%	70.3%	57.9%	58.4%	10.9%	10.4%

\* 출처: 정병호 외,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연구, 경기도교육청, 2006

〈표 8〉의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률 70%, 중학교 58%, 고등학교 10.4%에 불과하다. 이들은 학습 수준과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에 비해 1~2년 낮추어 편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9〉 북한이탈 학생과 남한 학생 중도 탈락률 비교

구분		초	중	고	계	
2008	일반 학생	08. 4 재학생 수	3,164,771	25,667	20,936	96,650
		중도 탈락생 수	20,450	20,101	32,943	73,494
		중도 탈락률(%)	0.6	1.2	2.2	1.2
	북한이탈 학생	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중도 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 탈락률(%)	1.4	9.0	14.2	6.1

북한이탈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 학생들과의 중도 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 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 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내일신문 2009. 7. 22).

## 나.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 1) 다문화 가정 현황

상품과 자본, 노동의 국제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범세계적

인적 교류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결혼 증가, 탈북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2007. 8. 24)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254명으로 2006년 7월 86만5천889명에 비해 약 15% 증가하였다(법무부, 2008).

세계 최저의 출산율(2008년 현재 1.21명,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00만 명의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행자부, 2007).

한편 1990~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6만여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는 2006년 현재, 2000년에 비하여 7배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6).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초등학생이 전체의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동훈(200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 자녀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다문화 가정 실태

한편, 국내 이주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사회적·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생활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수준 이하의 경우도 44.2%였다(설동훈, 2005).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예컨대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지니는 경우가 있었다(교육부, 2007).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설동훈, 2005).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87%)이 중·고교 진학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뒤떨어져 상급 학교 진학률도 낮으며,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이들 자녀들의 문제는 결혼이민자들의 문제와 이들 가정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문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및 학습 자료, 교수 방법 등이 충분히 개발·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과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주

류사회에 통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교육적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용정부가 국정지표로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장점을 발굴, 이를 최대한 살려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일이 요청된다. 그러나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 지원은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한 실정이다.

본래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입장이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점은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저임금 생산직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외국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법적 제도를 마련해 가면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기 시작한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 2007년에 대비하여 23.3%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8).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모두 1,40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가량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 현재 18,769명이 전국의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다. 이는 2007년도(13,445명)에 비해 5,32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 중 84%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몇 년

지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생활 실태를 이주노동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다문화 가정 자녀 수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외국인근로자 자녀	981	314	107	1,402
국제결혼가정 자녀	15,804	2,205	760	18,769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 3)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부적응 실태

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①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 부진의 정도가 심각했고, ②정체성 혼란을 경험했고, ③집단 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했다(조영달, 2006). 즉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의 교육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았다. 이러한 언어능력 부족은 곧바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성배(2005)의 연구 결과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과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기 쓰기와 독후감이 취약했고,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았다.

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또한 10명 중 2명꼴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이었고 그 다음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20.7%)이었다(설동훈 외, 2005). 일반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해서인 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요소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부족한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 부진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 개설, 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를 강조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나 취업, 문화 차이 등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1명꼴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는 10명 중 2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 자녀 및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제한된 의사소통과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머니 또한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낮은 한국문화 등으로 한국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식 입학이 아닌 청강생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 3. 중·고등학생의 생활 실태

중·고등 학생들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며, 학교 부적응, 자살, 폭력,

가출 등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자녀와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기 바라고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나 학생들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하려 할 뿐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오직 한길로 향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소홀한 실정이다.

박효정(2003)은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함으로써 부모와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행된 연구 자료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의식 및 생활 실태를 다음에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가. 개인 생활

개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자아 존중감과 포부 수준이 개인 생활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낮으나 자살 충동, 가출 충동, 음주 등 문제 행동과 관련 변인들도 개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예방·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건 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 나. 가정생활

가정생활 만족도는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자녀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일방적인 대화와 형제 간 편애를 덜 할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의 생

활·문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 차원에서의 학부모 교육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다.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 학교의 생활지도 측면과 학생의 학습 태도, 친구 관계로 나타나 학교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작용해야만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 능력 등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생활지도 운영체제의 개선 등 학교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 방법에 의한 지도 등 가정·학교 차원의 연계적인 지도 체제의 마련 및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 IV. 제언

위에서 살펴본 학교 부적응에 대한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학교 부적응에 대한 대책 추진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상적인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제도 속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리라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들 학생들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개발·활용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박효정(2003) 및 여러 논문에서 개인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자아 존중감이 개인생활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생 실태 조사 및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고려해 볼 때 학교 부적응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질적, 외형적인 면보다 정신적, 내면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체감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하여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인 면과 프로그램 적용 면에서 한 가지씩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교육 목표(지표)에 전인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토록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물질문명이 정신문화보다 우위에서 이 세상을 지배 또는 주도하였다면 21세기는 물질문명 속에서도 정신문화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내재적 원동력을 가진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문화가 중심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평등화 개념으로 변화되며, 나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 중심적 사고로 변화되며,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사고로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부적응이란 과제를 논하면서 전인교육을 거론하는 것은 어찌면 엉뚱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을 통한 전인 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목표가 물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교육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기에 교육의 목표에 정신적인 면을 우위에 두는 용어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정신적인 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 궁극적인 이념인 헌법상의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인, 전인 교육 또는 전인 양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목표에 전인교육(양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전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 이를 언급하면, 우 명(2008) 선생은 “우리는 예로부터 인간의 교육을 하여왔다. 우리나라의 옛 교육은 성인들의 말씀을 외우고 또 행하려고 노력하여 온 것이다. 전인교육을 말로는 하지만 교육에서 전인에 관한 정의와 또 전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참 전인은 참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진짜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세상에는 교육도 많이 하고 교육기관도 많지만 참 전인교육을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우리가 자기만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론 것이 무엇이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려면 자기부터 먼저 완성이 되고 동료나 가족과 학생들을 전인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이 진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세계와 그 마음속에 살고 있는 가짜인 자기를 다 버리면 진짜만 남아 진짜인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인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내용은 철학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물리학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및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진리 또는 전인이라는 용어가 과학적 논거를 통해 밝혀지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기에 교육목표에 전인교육 또는 전인 양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전인교육(양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

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서 서서히 쫓아가는 일(심성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등)들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학교 부적응도 그 정책들과 함께 해결되는 길을 찾게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목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교육목표(미션)	교육 지표(비전)
교육과학기술부	선진 일류국가 건설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 강국 건설
서울	행복·감동·보람 주는 세계 일류 서울 교육	Vision 2010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부산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	The World Education City 2010 세계적인 교육 도시와 경쟁하자
대구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
인천	세계 교육의 중심, 명품 인천 교육 실현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
광주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학생 중심 으뜸 광주 교육 2010
대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	Education Daejeon 2010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 교육
울산	꿈·보람·감동의 교육 도시 울산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경기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강원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충북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충북 Edu★Star 2015 교육 만족 전국 최상위로
충남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 교육	5대 교육 비전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교육목표(미션)	교육 지표(비전)
전북	푸른 학교 바른 교육 Happy School, Well Education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
전남		세계와 미래를 준비하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경북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
경남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제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출처: 2009년 11월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2. 기억을 지우는 심리·심성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인성 교육 또는 심리·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되고 실천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을 변화시켜 참된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접목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고 참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된 기억을 지우는 색다른 인성 교육 관련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학생들의 인성 프로그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기억을 지우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사례로 미국 하와이 주의 호오포노포노 명상법이 있다. 이 명상법을 창안한 사람은 모르나 날라마쿠 시메오나로 하와이 주의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 명상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많은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릿(마음)속에 저장된 기억을 지우고 없애는 것이다.

휴렌, 마사후미(2009)는 지금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마음속의 불행, 좌절, 사고, 병 등 불쾌한 기억들이 우리들 인생에 투영되어 불행한 일을 끌어당겨 일으키고 있다. 지금의 고민과 불행 등은 모두 과거의 기억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을 제거하면 과거의 기억에 마음을 뺏기는 일 없이 고민과 불행 등이 사라지면서 인간 본연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2007년 KBS가 다큐멘터리 '마음'을 시리즈로 방영하면서 제4편에서 '기억을 버려라'는 주제로 다룬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다. 기억을 버리는 일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기억 버리는 명상이 마음수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 명상 수련을 적용해 본 결과 초등학생 등 저학년일수록 기억 버리는 명상이 쉽게 진행되면서 인성적인 면에서 변화도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일체가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이 기억에 의해 자신의 기준, 고정관념 및 자아가 형성되기에, 사람과 사물을 자연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또는 자기 관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기억 일체가 지워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동화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고 크고 청정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기억을 계속 저장 또는 더하기를 하면서 살아왔다면, 기억을 지우고 빼는 방법만으로도 우리 학생

들의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 V. 결론

OECD/PISA 국제학력비교에서 매년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 교육이 지닌 교육 부적응 등 현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등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점점 밝아질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로 전개될 것이라 확신한다.

### 【참고문헌】

- 김금순(1997), 학교 부적응 여중생 자아 존중감 향상 사업 실천,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미숙(2004), 북한이탈 학생의 학교 적응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신희경 외(2007), 학교 부적응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고등학생).
- 박효정(2003),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변귀연(2004), 학교 부적응 학생 적응력 향상 집단 프로그램 연구, 호남대학교 원 논문집.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 조사 분석 및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안병영, 김인희(2009), 교육복지정책론, 다산출판사.

여혜숙(2002), 학교 부적응 중학생 자기 성장 프로그램 효과, 한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우 명(2006), 하늘의 소리로 듣는 지혜의 서, 참출판사.

우 명(2008), 진짜가 되는 곳이 진짜다, 참출판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 상담 분석 자료.

한만길(2009), 북한이탈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지원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 결과.

휴렌, 마사후미(2009), 호오포노포노의 지혜, 이은정 역, 눈과 마음.

■ 성명: 이석기

주소 : (614-0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5-1번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화 : 010-3556-2163

전자우편 : skismile@hanmail.net

